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3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4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 중 EerdWord(봇 차단 지속, 정책상 제외)를 뺀 18개를 확인해, 접속된 16개 피드의 새 글 15편을 전문 독해하고 10편을 골라 5개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Leiter Reports와 Scott Aaronson은 이틀째 일시적 요청 제한(429)입니다.

어제의 글들은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라는 질문을 여러 자리에서 던졌습니다. AI 설비투자라는 역대급 지출의 청구서는 누구에게 가는가. AI 붐에 끼지 못한 나라의 국채는 누가 사 주는가. 학술지 심사의 이해관계가 드러날 때 그 비용은 누가 보는가. 그리고 대대로 물려준 부는 정말 몇 대나 버티는가. 답은 하나같이 문서와 제도의 틈에서 나왔습니다.

1. 4,000억에서 8,000억 달러로 - AI 설비의 돈줄이 바뀌고 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번 주 내내 다룬 'AI 붐의 지속 가능성'이 결국 돈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Conversable Economist가 소개한 Stijn Van Nieuwerburgh의 브루킹스 논문 「Financing the AI Buildout」(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26년 가을호 회의 초안, 브루킹스 게재와 NBER w35865로 실재 확인)은 이 돈줄의 지도를 그립니다. 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알파벳 다섯 회사의 설비투자(capex - 건물·장비처럼 오래 쓰는 자산에 쓰는 돈)는 2020년 약 970억 달러에서 2025년 4,000억 달러를 넘었고, 2026년에는 8,000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올해 이 투자액이 다섯 회사 영업현금흐름(사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의 합계를 처음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번 돈으로 짓는' 투자였지만, 이제부터는 밖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 빅테크가 1조 달러 넘는 현금을 쌓아 두고 '무슨 투자를 기다리나' 했던 지난 10년의 수수께끼가, 이 논문의 눈에는 AI 설비투자라는 답을 찾은 셈입니다.

바깥 돈은 두 갈래입니다. 지분(에쿼티) 쪽은 데이터센터 개발사, 부동산투자신탁(REIT), 인프라 펀드, 사모펀드. 부채 쪽에서 빠르게 커지는 것이 '사모신용(private credit)'입니다 - 은행이 아닌 투자 펀드가 담보 대신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 빌려주는 시장으로, 국제결제은행(BIS) 분기 보고서(Abbassi·Aldasoro·Doerr, 2026년 9월호, 실재 확인)에 따르면 잔액이 2조 5천억 달러, 이 시장에서 테크 기업 차입이 2010년 220억 달러(전체의 22%)에서 2025년 1조 달러 이상(44%)으로 늘었습니다. 사모신용은 투자자 돈이 5~8년 묶여 있어 예금 인출 사태 같은 전염은 은행보다 약하지만, 손실이 어디에 쌓이는지는 그만큼 보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본 CoreWeave 채권 급등(10/22)은 이 지도의 한 귀퉁이가 시장 가격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저자의 역사 비교 - 철도 붐, 닷컴 붐 - 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골드러시에서 돈을 번 것은 광부보다 곡괭이 장수였고, 실패한 광부도 곡괭이 값은 이미 치렀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사설(데이터센터 건설을 민간 자본에 맡기자는 논지)이 인용한 추정치 - 2026년 1분기 세계

교역 증가분의 최대 4분의 3이 AI 관련 - 도 같은 무게의 다른 표시입니다(신문이 인용한 추정치이며 산정 방식은 미확인).

2. 구경꾼 경제의 국채는 누가 사는가

이틀 전 소개한 Fernández-Villaverde의 「Saving for the Machines」(10/22)에 후속 계산이 붙었습니다. 질문: AI 붐이 성장을 밀어 올리면 정부 부채 문제도 자동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저자의 봉투 뒷면 계산(back-of-the-envelope - 큰 구조를 잡는 간이 추정)의 답은 '아니오'입니다. 핵심 고리는, 자동화 투자를 유인하려면 실질금리가 크게 올라야 하고(그의 기준 시나리오에서 10년물 5.1%→13.6%), 금리가 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는 동안 부채 비율은 계속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AI 채택국(미국)조차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96%(2040년)까지 오르는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 기계 몫인 자본소득이 GDP의 88%까지 커지므로 자본소득세(그의 계산으로 36%)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구경꾼(bystander)' 경제 - 같은 세계 금리를 물면서 AI는 채택하지 못한 나라, 저자의 예는 스페인 - 입니다. 성장은 옛 추세(1.6%) 그대로인데 세계 금리만 오르니, 필요한 기초재정수지 흑자(이자를 빼고 계산한 재정의 순적자·흑자)가 GDP의 44%에 달합니다. "어떤 세제로도 그 돈은 걷히지 않는다"가 저자의 문장입니다. 선택지는 디폴트, 인플레이션, 아니면 금융 억압 - 자국 저축이 해외 기계로 빠지지 못하게 하는 자본 통제 - 입니다. Cowen이 덧붙인 반론도 실려 있습니다: 채택 0% 가정이 극단적이고, 아이디어는 공공재라 미국·중국의 AI 혜택을 비채택국도 입을 수 있으며, 자본 공급이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일 수 있다는 것. 저자 스스로 "전망이 아니라 기준점 계산"이라고 선을 긋지만, '성장이 부채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낙관에 금리라는 빠진 변수를 끼워 넣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3. 편집자와 저자의 공모 1만 건 - EditorCheck

이번 주 세 번째 학술지 신뢰 소식입니다(화요일 GEB 편집진 총사퇴, 수요일 창립 편집자의 이해관계 조사에 이어). Retraction Watch 보도: 프랑스 툴루즈대 Jules Di Scala 팀이 만든 도구 EditorCheck가 PLOS와 MDPI 두 출판사의 논문 51만여 편의 메타데이터를 훑어, 심사 담당 편집자와 저자가 과거 공저자였던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두 출판사의 규정(PLOS 5년, MDPI 3년 내 공저 금지) 위반으로 걸러진 것이 1만 건 이상(PLOS 8천여, MDPI 2천5백여 - 전체의 약 2%)입니다. 이 연구는 10월 15일 ACM/IEEE 전자도서관 공동학회(JCDL)에서 발표됐고 학회 논문집(ACM DOI)으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를 렌 대학 메타과학자 Florian Naudet가 잘 말합니다 - 논문은 '학계의 화폐'이고 편집자는 그 화폐의 발행 담당이라, 이해관계는 돈이 아니라 관계로도 생긴다는 것. PLOS는 표시된 100여 편을 재심 중이고, 지난달 한 Elsevier 저널은 같은 종류의 문제로 165편을 철회했습니다(보도 인용). 연구자들은 다음 단계로 '상호 심사'(편집자들이 서로의 논문을 번갈아 심사하는 구조) 추적을 계획 중입니다. 사흘의 보도가 하나의 지도를 만듭니다 - 학

술지의 신뢰는 규정이 아니라 그 규정을 검사하는 도구와 사람이 지킵니다.

4. 계획서는 거꾸로 읽는다 - '도시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학자 Daniel Little의 블로그에 실린 기고문이 어제의 숨은 수확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지방 정치인 Roberto Deriu(30년간 시의원·도지사·주의원)의 「도시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 요약입니다. 그의 독법: 계획서를 앞에서부터 읽는 사람은 없고, 경험자는 '예외'부터 찾습니다. 경계를 30미터 옮기는 변경, 특정 필지에 딱 맞게 쓰인 조항, 소수점 하나 올라간 용적률 - 일반론은 위장이고 구체성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토지대장과 회의록 날짜를 대면, 문서가 익명으로 처리한 결정에 이름이 돌아옵니다. 그는 이를 인과 추론의 언어로 말합니다. 인과의 화살은 계획에서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결정→문서→정당화로 간다 - 계획은 원인이 아니라 결정이 '기록되고 세탁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반사실적 확인(계획대로만 지어진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 '문서가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자료 비평, 그리고 처방 - 예산에 서명과 근거를 요구하듯 토지 결정에도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가'를 실시간으로 기록하라 - 까지 이어집니다. 이 보고서가 앞서 다룬 멜버른 조폐국 문서(10/20)의 독법과 정확히 같은 눈입니다. 권력이 자기 행위에 대해 생산한 문서는 결여된 주어를 복원해 읽어야 한다는 원칙은 역사 비평 전반에 적용됩니다(기고문 전문을 읽었고, 저서 원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5. 부의 충격은 3대를 넘지 못한다

부유세 논쟁이 뜨거운 시기에 나온 계량사회사 연구입니다. Gregory Clark과 Neil Cummins의 논문 「How Long Do Wealth Shocks Persist?」(Review of Income and Wealth 게재, 1700~2025년 잉글랜드, 출판본 확인)은 자연실험을 씁니다. 1880년 이전 잉글랜드에서 자녀 수는 사실상 '생물학적 복권'이었고, 부유층일수록 자녀 수가 자녀 한 사람의 상속 몫을 크게 갈랐습니다 - 이렇게 우연히 생긴 부의 충격이 후손에게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결과: 그 충격은 3대 뒤에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 자체는 5대 이상 지속됐습니다. 두 결과를 함께 놓은 저자들의 해석 - 장기적으로 부는 '물려준 자산'보다 '축적과 유지에 연결된 행동의 가족적 계승'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자들의 식별 설계와 해석이며, 영국 사례를 다른 나라로 곧장 옮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날 Cafe Hayek이 다룬 캘리포니아 부유세 논쟁(주택버블식 표현을 빌리면 '과세 기반이 이미 30% 빠져나갔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집계 인용 - 억만장자 7명, 5,399억 달러)과 대비해 읽으면, 부의 이동성을 두 장기·단기 양쪽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는 10/20에 같은 저자 팀의 계산을 반대 방향(부유세의 행동 반응)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짧게 덧붙입니다. ① 백만 건이 넘는 예측시장 계약(Polymarket·Kalshi·Manifold·Metaculus)을 분석한 새 논문은 'p%로 예측된 사건이 약 p%만큼 일어났다'는 교정(calibration) 결과를 냈습니다 - 집단 예측이 개별 사건의 확실성은 아니어도 불확실성의 유용한 추

정이라는 것(MR 소개). ②Alex Tabarrok는 중국에서 승인된 항암제를 구하러 상하이에 다녀온 아들의 증언(그 약은 미국에서 2025년 7월 승인됐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음)을 계기로 FDA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③Experimental Theology는 새 연재(노리치의 줄리안 『계시』 25장)로 마리아 공경을 다뤘는데, 그리스도가 어머니를 기뻐하듯 인류를 기뻐한다는 해석과 수도원의 Salve Regina 찬송 - 이 블로그의 다른 연재('이식 충격')가 다루는 가톨릭 실천의 토양을 본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④Cafe Hayek의 인용은 Fritz Machlup(1960)의 지적 - 비용 상승만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려면 수요 확장이 함께여야 한다는 것으로, 10/23의 공급 충격 논의와 맞물립니다.

독해의 범위를 밝힙니다. EerdWord는 봇 차단 화면이 계속되어 정해진 방침대로 수집에서 제외했고(우회 시도 없음), Leiter Reports·Scott Aaronson은 이틀 연속 429로 오늘도 읽지 못했습니다. 본문 확인은 접속된 16개 피드의 새 글 15편 전문입니다. 외부 링크 중 추가 확인한 것은 브루킹스·NBER 논문 페이지, BIS 사모신용 보고서, EditorCheck의 ACM 학회 기록, Clark-Cummins 논문 출판본 페이지입니다. 사모신용 규모·테크 차입 비중은 BIS 저자들의 추정, 부채 시나리오 수치는 저자의 시뮬레이션, 예측시장 교정은 저자들의 집계이며 각 원문 전체 재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주 집계는 WSJ을 인용한 2차 인용입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반드시 읽을 링크

1. Conversable Economist, AI 설비투자의 돈줄 - https://conversableeconomist.com/2026/10/22/financing-the-ai-physical-capital-buildout/
2. Fernández-Villaverde, 구경꾼 경제의 재정 - https://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26/10/will-bystander-economies-be-able-to-finance-their-governments.html
3. Retraction Watch, EditorCheck 보도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2/editorcheck-handling-editors-authors-collaboration-plos-mdpi-joint-conference-digital-libraries/
4. Roberto Deriu, 도시계획 읽기법 - http://understandingsociety.blogspot.com/2026/10/guest-post-roberto-deriu-urban-planning.html